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 Contents

- | | |
|--|---|
| <input type="checkbox"/> 광둥성 정부, 2018년까지 항만 및 도로건설에 약 4,800억 달러 투자 | 2 |
| <input type="checkbox"/> 신규 개장 멜버른 차량전용부두 경쟁본격화 | 3 |
| <input type="checkbox"/> 영국 Genesis사, 필리핀 ICTSI 지분 5% 확보 | 4 |
| <input type="checkbox"/> 중국, 탄자니아 바가모요(Bagamoyo) 항만 종합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 | 5 |

□ 광둥성 정부, 2018년까지 항만 및 도로건설에 약 4,800억 달러 투자

- 광둥성 5개 주요 항만의 2012년 화물 처리량은 약 14억 톤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4,743만 TEU로 2010년 동기대비 20%의 성장이후, 전년대비 각각 5%, 3.8% 증가
 - 주요 항만으로는 선전항(深圳港), 광저우항(廣州港), 잔지앙항(湛江港), 산토우항(汕頭港) 등이며 선전항은 화물과 컨테이너 처리량이 각각 동기대비 2.2%, 1.6% 증가하였고 이하 3개 항만의 화물 처리량도 각각 0.8%, 10.0%, 13.9%로 증가함
 - 2012년 선전항과 광저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각각 2,294만 TEU, 1,452만 TEU로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4, 6위를 차지하였고 광저우항의 화물 처리량은 세계 6위를 기록함
- 광둥성 정부는 2015년까지 1만 4100억 위안(약 2,300억 달러) 2018년까지 1만5400억 위안(약 2,500억 달러)을 투자하여 물류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460개 진행 예정¹⁾
 - 먼저 광둥성은 2,661억 위안(약 430억 달러)을 투자하여 9개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2,075km의 16개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임
 - 또한 대도시를 연결하는 6,800km(2017년말 8,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연해 5대 항만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계획임
- 항만 건설 프로젝트는 13건으로 투자액은 656억 위안(약 106억 달러)으로 향후 화물처리능력을 컨테이너 1,050만TEU, 석탄 7,794만 톤, 유류 2,150만 톤 증가시킬 계획임
 - 또한 2015년 말까지 연해내수로 444km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와 항로준설 프로젝트 20건을 추진할 예정임

< 아오시 연해 고속철도 개발도 >



자료 : www.baidu.com

자료 : www.gd.chinanews.com, 2013.4.15.

박여진 연구원 (☎ 02-2105-2967, jyp06@kmi.re.kr)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ho@kmi.re.kr)

1) 광둥성 중요 기초시설 건설 추진방안 (2013~2015)

□ 신규 개장 멜버른 차량전용부두 경쟁본격화

- 멜버른항은 3개 항만운영사를 Webb Dock내 차량전용부두 운영사 후보로 선정
 - 선정된 3개회사는 Hutchison Port Holdings(HPH), Wallenius Wilhelmson Logistics(WWL) 및 Australian Amalgated Terminals(AAT)임
 - 멜버른은 호주 최대의 자동차처리항만으로서 새로 개장하는 멜버른 차량전용부두는 1.6억 호주 달러가 투입되는 Webb Dock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 Webb Dock 재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2016년까지 연간 60만대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됨
 - HPH와 WWL는 새로운 터미널 옆에 위치할 사전차량검사소와 빅토리아주 전역에 걸쳐 직접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허브를 준비하고 있음
 - 2014년 3월까지 차량전용부두와 검사 허브의 운영업체 선정을 마칠 예정임

< 멜버른 항만 전경 >



자료 : www.portstrategy.com

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3.4.25

김우선 전문연구원 (☎ 02-2105-2889, firstkim@kmi.re.kr)

□ 영국 Genesis사, 필리핀 ICTSI 지분 5% 확보

- 영국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투자 전문 회사인 Genesis Asset Managers는 최근 ICTSI 지분의 약 4.99%를 확보함
 - ICTSI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있는 GTO(Global Terminal Operator)로서 대부분의 지분을 필리핀 백만장자이자 ICTSI의 회장 겸 CEO인 Enrique Razon이 보유하고 있음
- Genesis의 투자 철학은 '신중한 장기 투자'이며, 신흥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높은 지역으로 투자 기준은 GDP 성장률과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 등이라고 언급
 - 또한, 이러한 신흥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위해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확보하는 것임
- ICTSI는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27개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등에 진출해 있음
 - 최근에는 남미 및 아프리카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동량 처리 실적 기준 세계 Top 10 GTO를 목표로 함
 - 현재는 브라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남미 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마다가스카르 및 나이지리아 라고스항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 ICTSI는 신흥 시장인 필리핀 기업으로서 제3의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에 있어 다른 기업들보다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또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국가 일부 및 동유럽 등은 최근 항만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의 진출을 강화할 계획임
 - 민영화되는 항만 대부분은 구항으로 재개발, 장비현대화 또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 ICTSI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Genesis사 이외에도, 최근 다양한 투자 전문 회사의 GTO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가 MSC Terminal 지분 35%를 확보하고, Chain Merchants Holdings가 CMA-CGM 터미널 부문 지분 49%를 확보하였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선사들의 자가터미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항만부문에서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신흥시장에 대한 도전도 없는 실정임
 - 민간의 진출 의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및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 : www.lloydslist.com, 2013.4.10.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중국, 탄자니아 바가모요(Bagamoyo) 항만 종합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

- 2013년 3월 24일~25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탄자니아 순방 시 자카야 키크웨테 탄자니아 대통령과 탄자니아 사회간접시설 개발을 위한 협정¹⁾에 서명
 - 특히 양국은 2017년까지 탄자니아의 상업 수도이자 주요 항만도시인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북쪽에 위치한 바가모요시에 신규항만을 개발하기로 합의함
 - 이를 통해 중국은 바가모요에 100억 달러 규모의 항만과 기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중국은 2013년 안에 바가모요에 신규항만 건설을 위한 초기 자금으로 5,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나머지 자금은 2014년과 2015년에 연속해서 지원할 예정임
- 탄자니아 동부 연안에 위치하는 바가모요 신항은 향후 최신시설을 갖추어 연간 2,000만 TEU의 컨테이너를 취급²⁾할 수 있는 제4세대 항만으로 건설될 예정
 - 바가모요 신항 건설은 다르에스살람항 적체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검토되었고 2010년 자카야 키크웨테 대통령이 선거유세 당시 건설 추진을 확인해줌³⁾
 - 금번 항만 건설사업에는 34km의 바가모요-물란디지(Mlandizi) 간 연결도로와 65km에 달하는 바가모요에서 탄자니아-잠비아 철도(TAZARA) 및 중앙철도를 연결하는 철로 등 연계수송망 건설 사업도 포함됨
- 바가모요 신항 건설을 통해 중국과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국가들 모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중국은 바가모요 신항 건설을 통해 잠비아, 짐바브웨이 및 콩고민주공화국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중국으로의 자원 수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함
 - 탄자니아는 기존 다르에스살람항의 화물 적체 해소 및 탄자니아의 수출입 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무역이 보다 활성화 되고 바가모요가 동아프리카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말라위,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르완다, 그리고 우간다 등 이웃국가들은 탄자니아를 거쳐 인도양으로 진출입하는 가장 짧고 실용적인 수출입 루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됨⁴⁾

자료 : sabahionline.com, 2013.3.27/ www.dredgingtoday.com, 2013.4.14.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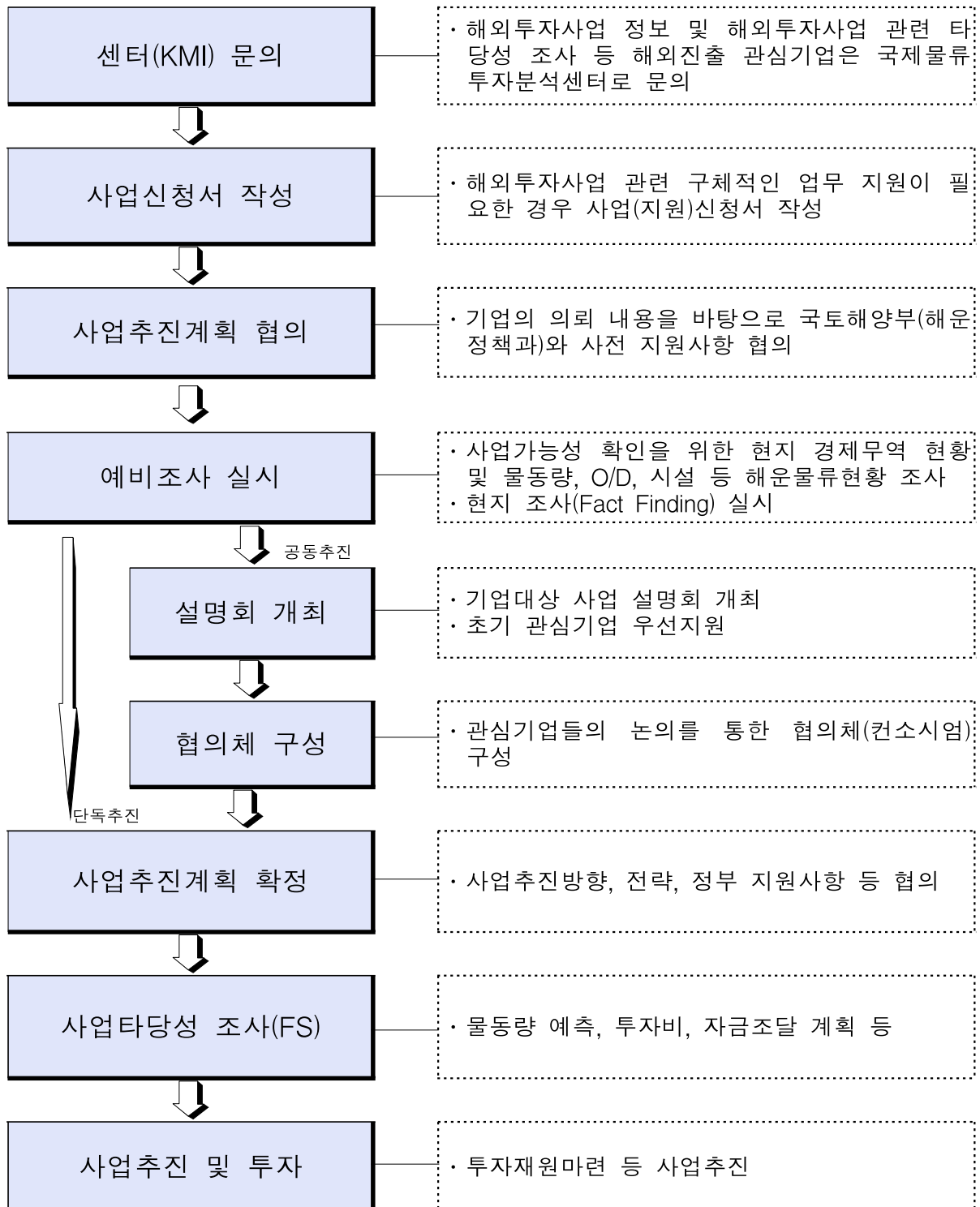
1) 탄자니아 본토에 대한 16개의 개발 프로젝트와 잔지바르(Zanzibar) 섬에 대한 3개의 사업이 포함됨

2) 현재 탄자니아 최대 항만인 다르에스살람항은 연간 80만개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며, 아프리카 최대 항만인 남아프리카 더반(Durban)항의 연간 처리능력은 300만 TEU임

3)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74호 참조

4) 현재는 거리가 멀고 비용이 높은 경로인 케냐의 몸바사(Mombasa)항과 남아프리카 더반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